

지철 스님의 도상(圖像)을 통해 본 상징과 은유

“유불도 화합 위해 허구 전해”

호계삼수도(虎溪三笑圖) 소견(所見)

대표적인 중국의 삼대사상은 불교와 유교 도교라고 할 수 있다. 인도의 불교가 중국에 토착화되는 과정에서 많은 불교적 변용(變容) 현상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가장 현저한 변화 중 하나는 사상과 종교와의 타협이다.

중국의 불교는 인도와는 다르게 상당히 다양한 면에서 그야말로 중국적인 사상이라고 할 정도로 시기적으로 점차 변화해가다 완전히 정착한 상태의 불교를 한반도로 전해준다. 현재 한국의 불교는 사실 당(唐)나라 방식의 선불교(禪佛敎)의 변용이라고 볼 수 있다.

불교를 토착화시키려는 중국의 승려들과 불자들은 그 타협하는 과정에서 권력에 도전(挑戰)하기도 하고 엄청난 분량의 중국적인 불교 위경(偽經)을 지어내기도 했다. 비록 지금은 공산주의라는 사상의 지배하에 있지만 결국은 중국을 대표하는 최대 종교로서의 현재를 만들어냈다.

혜원·도연명·육수정 가상 만남 신사상 수용 및 전파 보여줘

그런 과정에서 그려진 그림이 바로 호계삼수도(虎溪三笑圖)이다. 남송(南宋)의 진성유(陳聖俞)가 지은 <여산기(廬山記)>에 보면 동진(東晉)의 유명한 학승인 혜원(慧遠)이 사는 여산 동림사(東林寺)에 귀거래사(歸去來辭)로 유명한 당대의 시인인 도연명(陶淵明)과 도교(道敎) 교학을 대성한 도사(道士) 육수정(陸修靜)이 찾아온다.

당시(當時) 혜원 화상은 동림사에 살면서 서원하기를 평생 산문(山門)밖을 나서지 않기로 하였다 한다. 적어도 30년간 혜원스님은 속세(俗世)와 산중(山中)을 가르는 경계인 호계(虎溪)넘어간 적이 없었다. 혜원스님이 호계를 넘어가면 호랑이가 크게 울어 경고(警告)를 하기에 혜원스님은 그다지 신경 쓰지 않고 살았다.

그런데, 유교(儒敎)를 대표하는 선비인 도연명과 도사(道士) 육수정이 찾아와 종일 차담을 나누며 시간가는 줄 모르고 교유(交遊)를 즐겼다. 그러다가 두 사람이 돌아가는 길을 배웅하면서 재미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서로 나누며 호계에 걸친 다리를 지나버렸다. 그 순



보어의 호계삼수도

간 호랑이가 포효하는 소리를 듣고 서원을 갠 것을 알고도 서로 마주보며 크게 웃었다 한다.

여산(廬山) 혜원(慧遠)은 유교를 어릴 때 익히고, 이어서 노장(老莊)의 도를 닦다가 20여세가 넘어 출가해서 여산에서 불교역경(佛敎譯經)에 전념했다. 뜻을 같이하는 인사들을 모아 열불결사인 '백련사(白蓮社)'라는 결사를 조직하기도 하였다. 스님은 평소 '影不出山 跡不入俗'(그림자 산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발자취는 속세에 들이지 않는다)는 글을 써서 걸어 두고 살았다 한다.

그러나 사실(史實)을 확인해 보면, 이 이야기는 삼교(三敎)의 화합(和合)을 위한 위조된 이야기다. 왜냐하면 육수정이 여산에 처음 도착한 것은 원가(元嘉, 424-453) 말년이었다. 이 때는 이미 혜원이 입적(入寂)한 30년 후이며 도연명이 죽은 20년 후이기에 세 사람이 만났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림은 한·중·일 동양 삼국의 나라에서 그 이후 계속해서 그려지고 감상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도 연담(蓮潭) 김명국(金明國)이 그린 그림이 전하고 일본과 중국에서는 웬만한 대가들은 다 한 번씩 그리는 인기 있는 주제다.

그러하여 최근에 종교간 갈등을 심각하게 겪고 있는 한국에서는 비구니, 원불교 교부, 가톨릭 수녀회가 모임을 같이 하면서 그 이름을 딴 '삼소회(三笑會)'라는 만남도 이루어졌다.

그런 그렇고, 종교간 갈등이 심화되는 이 시대에 호전적(好戰的)이고, 배타적(排他的)인 두 가지 특성을 지닌 미국식 한국기독교가 한국사회의 화합을 저해하는 상황에서 불교가 할 수 있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



동화사 성보박물관장

구도의길서 만난 '무념처'... 렌즈에 담아

박연희 첫 사진전...5월 29일까지

수행승들의 공간을 찾아다니던 작가는 마음속에 이런 의문을 가졌다. '왜 살아야 하는가? 나는 왜 이 작업을 해야 하는가' 그렇게 선지식들을 찾아 다니며 의문을 풀어가던 작가는 자신의 구도 과정을 렌즈에 고스란히 담아냈다.

그래서 텅빈 공간 덩그러니 접힌 좌복, 열려진 방문으로 보이던 뒤뜰은 단순한 배경 사진이 아닌 구도의 길에 선 선승들의 오롯한 삶을 담아냈다.

박연희의 무념처(無念處)전이 5월 29일까지 종로구 소격동 트렁크갤러리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는 스님들의 수행처 등을 담은 작품 15점이 선보인다.

트렁크 갤러리는 "신자본주의에 사는 우리들은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지 모른다. 이번 전시는 현대인들이 선의 세계를 통해 허무함 허탈함 덧없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복잡한 세상에 쉬어 가는 기본으로 찾아와 위로받고 갈 수 있었으면 한다"며 기획 취지를 말한다.

박 작가는 2007년 늦가을이로 계원 예술대에서 사진 전공을 시작할 때부터 불교를 작

품 속에 담아 보고자 마음먹었다고 한다. "처음 시작할 때는 막연히 불교적으로 작업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하지만 이렇게 발원을 하니 어느날 불교적 소재가 나한테 오더라고요"며 4년 전부터 기획된 작업의 시작을 이야기 한다.

이후 그는 전국의 사찰과 토굴을 돌아다니며 수행 스님들의 삶과 사상이 깃든 공간을 렌즈에 고스란히 담아내기 시작한다. "오랜 시간 수행하는 스님들의 미소를 보는 것만으로도 속세의 모든 근심과 걱정이 녹아날 정도로 위로가 됐어요. 한 분 한 분이 모두 선지식이었죠"

4년 여 촬영 기간 동안 그는 불교의 본질에 접근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한다. "이전에는 불교가 막연한 신앙이었던 거 같아요. 하지만 이번 작업을 통해 부처님의 삶이 왜 위대한지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저도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는 발심을 하게 됐죠"

이제 새로운 구도의 길에 들어선 박 작가는 매일 좌선으로 깨달음의 길에 다가가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이런 삶들을 다음 작업에서도 녹여내고자 한다.



박연희 작가가 자신의 작품앞에서 웃고 있다.

선지식 수행처 담은 작품 15점 선배 4년 촬영기간 불교 본질 공부 매일 좌선으로 수행정진 일과

"왜 살아야 하는지 왜 이 작업을 해야 하는지 그 화두를 작업 기간 내내 물었죠.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끊임없이 이를 마음에 염두에 두고 작업을 할 겁니다. 다음 작업도 그 연장선상에 있을 겁니다. 저의 작품이 돈이나 명예를 갈구하기 보다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일이었으면 좋겠어요"

불교가 너무 피상적이로만 알려져 안타



박연희 작가는 5월 29일까지 스님들의 수행처를 담은 사진전을 연다.

깝다고 말하는 그는 그의 작품이 불교를 알리는 데에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그래서 그는 앞으로도 렌즈 속에 쉼없는 삶을 담아낼 것이다. (02)3210-1233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무위자연' 섭리 50년 화폭에 펼쳐

민경갑 화백 33년만에 개인전 6월 3일까지 시립미술관서



“도는 보는 것도 아니고 듣는 것도 아닙니다. 도가 곧 자연이며 자연이 움직이는 것이 도이자 섭리죠. 작가가 그림을 그리는데는 중요한 것이지만 사상과 시대정신을 작품 속에 담아 자신만의 유니크한 세계를 구축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번 전시는 지난 50년 동안 제 정신 세계의 변화를 담아낸 결과물입니다”

우리나라 동양화 1세대인 민경갑 화백 <사진>의 개인전 '자연에서 길을 묻다'가 5월 8일부터 서울시립미술관 본관(6월 3일까지)과 남서울미술관(7월 8일)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 민 화백은 50년 동안 그려온 자신의 작품 107점을 선보인다. 1979년 첫 개인전 이후 33년만에 여는 전시다.

"그동안 부스 개인전 형식의 아트페어는 간간히 참여했지만 개인 전시는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계속 변화하는 작품 세계를 보여주려 하다 보니 33년만에 전시를 열게 되었는데,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작품으로 관객을 찾아 가려다 보니 어느새 이렇게 시간이 훌쩍 흘러버렸습니다"

1969년 상파울루비엔날레에 출품하는 등 해외에서도 주목을 받았던 민 화백은 구상과 추상의 경계를 넘나들며 자연과 한국적 정서의 결합을 화폭에 담아왔다. 현대와 전통을 오가는 그의 작품은 화선지와 묵 천연안료 재료로 한국인의 정신세계를 표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6단계로 나뉘어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무중의 세계-자연과의 조화-공존-자연속으로-무위자연-진여의 세계 등으로 지난 50년 작품 세계를 펼쳐낸다.

"미술대학에 입학하고 동양화의 매력에 푹 빠졌죠. 전공을 동양화로 선택하고 난 이후 새로운 질감을 표현하기 위해 많은 도전을 했어요. 침봉으로 화선지를 너무 두드려서 장판에 구멍이 나기도 하고 다리미도 다려보고 인두도 지져보고 온갖 실험을 하



민경갑 화백은 33년만에 두번째 개인전을 연다. 6월 3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자연과의 조화를 담은 작품 107점을 선보인다.

면서 다양한 질감을 내보려고 노력했어요"

그는 생성과 소멸이라는 자연의 섭리를 통해 일체의 기교와 인위가 작용하지 않는 자연의 조화를 표현하려고 했다. 그 속에서 한국인의 정신적 원형과 예술 세계의 근본을 찾으려 했던 민 화백. 특히 '자연속으로'라는 작품은 성황당의 깃발을 모티브로 비상과 비구상으로 표현해 냈다.

한국인만의 정서를 찾고 자연과의 합일점을 찾으려는 일련의 작업들은 불교와도 맞닿아 있다. 민 화백은 90년대 자연과의 공존이라는 주제로 그림을 그리면서 탐,

미극반가사유상, 연꽃 등을 소재로 한 불교적 세계를 작품에 담아왔다.

민 화백은 "이번 전시에서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불교적 소재로 된 작품도 다수 그려왔다. 전통과 자연이라는 정신적 사상을 찾아보면 결국 불교와도 만나게 돼 있다"고 말한다.

인생은 60부터라며 현재 자신이 스무살이라고 말하는 민 경갑 화백은 앞으로도 한국인만의 유니크한 세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동양철학은 천지만물 하늘과 땅이 서로 하나가 되는 합일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정신은 무가 혹은 도의 사상 불교 등으로 연결되어 있죠. 앞으로 자연의 섭리를 표현하고 자연이 지닌 본질적인 세계를 표현하며 진리의 세계에 도달하는 작업을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민경갑 화백은 서울대 미술대를 졸업하고 쌍 파울로 비엔날레에 초대 출품했고 >서울올림픽 현대세계미술제 운영위원회 위원 >불교미술대전 심사위원 >대한민국 미술대전 심사위원회 위원 >동덕여대·영남대·원광대 교수로 재직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와불 법랑인에 2만인등과 연등으로 변화와 불공기도를 올릴수 있으며, 발바닥에 새겨진 음자를 손으로 문지르면 액운이 소멸되는 세계 최대 와불법당을 개설.

세계 최대 와불(열반상)

성지순례를 와불법당 미암사로 오셔서 소원성취 하십시오.

시험합격, 사업변창, 학업성취, 자손득남, 운수대통, 무병장수

세계 최대층진신사리탑 (33층)
진신사리 1과가 3과로 자연증과된 신비한 영험 33층진신사리탑

신비한 쌀바위(미암사)
(중남지방문화재 제371호 지정)
백제 침류왕때 유세 부인이 자손을 얻게 해달라고 공을 드려서 쌀도 나오고 자손도 얻어 소원 성취하였으며 원적외선이 방사되어 노화가 방지되고 혈액순환이 촉진되며 신진대사가 원활해 집니다.

국가안정과 소원성취를 기원하는 적멸보궁 **미 암 사**
충남 부여군 내산면 저동리 ☎ 041)832-1188, 1189 www.ssalbawi.com(또는, 한글로 미암)

각 사찰에 불사포교에 도움이되도록 액자용, 족자용. 부처님 점안시 복장용, 부처님오신날 선물용. 특별히 제작 원가 보급합니다.

화엄진리의 세계를 함축한 대승경지의 정수. 법성도.

삼라만상의 진리와 영원한 대승법이 담겨 있는 법성도는 수지독송함은 물론 가까이 두고 보는 것만으로도 공덕이 쌓이며, 무장무애하기 때문에 모든 중생에게 장애와 걸림을 없게 합니다.

일체 번뇌망상, 괴로움과 슬픔들이 침범할 수가 없는 법성도!

수승한 영험과 공덕.기와 법이 살아있는 화엄 일승 법성도의 바다에서 일체만법과 지혜공덕을 구축하시길 바랍니다.

문의: **법 성 원** ☎ 전화 1688-7671
홈페이지 www.bswon.com